

특별기고



정기연 주필

물 절약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자

다 막대한 자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. 우리나라는 6~7월 장마철에 강수량 많아 댐이나 보의 물을 채워야 하는 데 올해는 중부지방을 제외하고 남부지방은 비는 왔지만, 강수량이 적어 지금 상수원인 저수지 물이 바닥에 가깝다. 이것을 공개한다면 물을 절약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온다.

그러므로 지자체는 물 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.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뭄, 홍수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며, 우리나라의 경우 8, 9월 내린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됐으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등 일부 지방은 여전히 지난해 겨울부터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골의 웅덩이 샘물은 말랐다.

올해는 겨울과 봄철 및 여름 가뭄이 지속되며 장마 기간인 여름에도 비의 양은 극히 적었다.

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강우량이 1천500mm로 저수율이 약 80%였지만, 올해는 669mm가량으로 저수율이 겨우 35%로 평년 대비 강우량이 절반가량에 그쳤다.

광주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원지에 물이 고갈돼 시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물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. 2021년 광주 상수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국민 1

인당 1일 급수량은 328ℓ로 프랑스(214ℓ)와 영국(279ℓ) 등 선진국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렇게 볼 때 물과 소비가 지속되면 향후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.

그러므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물 복지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. 수량이 부족한데 수질을 논할 수 없고, 수질은 좋은데 수량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. 광주시는 낮은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 및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시행하는 조류경보제가 동북호에서 아직은 발령되지 않았다.

광주시는 동북호 및 주암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와 정수장에서 수질관리 및 가정까지 공급되는 공급과정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 공인시험기관(KOLAS) 인증으로 수질검사 관련 국제적 수준의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활용수 등 물 절약을 통한 용수 확보 노력도 시급하다.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채소, 과일을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씻으면 평소 사용량의 약 60% 정도의 물 절약과 세탁기는 빨랫감을 모아 두었다 세탁하면 약 30%, 샤워 시간을 줄이고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평소 사용량의

60~70% 정도를 아낄 수 있다.

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주방에서의 물과 화장실에서의 물인데 대부분 가정의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돼 있고 12ℓ의 물통이 있으며, 박정희 대통령은 물 절약을 위해 화장실 물통에 벽돌 한 장씩 넣어 물을 절약하자고 했다.

광주시 진월동 거주 서영섭(93세) 씨는 화장실 물통 절수기 발명으로 발명특허를 획득했으며 설치돼 있는 물통에 절수기를 삽입하면 12ℓ의 물통에서 4ℓ(1/3) 물로 노폐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획기적인 절수 장치로서 설치된 물통에 발명품 절수장치를 하면 벽돌 16장의 물이 절약된다.

전국적으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해 환경청에 화장실 절수장치를 건의했으나 환경청 관계자는 절수 등급제를 시행해(1등급 40, 2등급 50, 3등급 60) 가장 절수효과가 좋은 1등급 절수기를 권장하지 않고 2~3등급을 인정하고 있다. 그러므로 지자체는 화장실에서의 물 절약을 위해 1등급(40) 절수기 장치를 해 물을 절약했으면 한다.

최악의 가뭄으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해 혼연일체가 돼 물 절약 대책을 세우 추진해 우리가 직면한 가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.

독자기고

소방차 길 터주기,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

안재용

담양소방서 교서119안전센터 소방교

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

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, 대형마트, 재래시장,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·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.

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니다.

물론 많은 홍보활동으로 긴급차량 운행 시 길 터주기를 하는 운전자 또한 많아졌다. 하지만 길 터주기 요령을 몰라서 소방차(긴급차량) 접근 시 당황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, 도로 여건상 길 터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.

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길터주기 요령은 첫째,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의 우

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. 둘째,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, 우측이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할 수 있다. 셋째, 편도 1차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혹은 일시정지 한다. 넷째,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,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. 다섯째,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,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한다.

그 외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, 협소한 도로 양면 주·정차 금지,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·차광막 등 설치하지 않기,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(황색선)설치 및 주변 주차 금지 등이 있다.

위의 사항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 의식의 변화다.

도로에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을 보게 된다면 위험에 처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, 도와주기 위해 출동 중인 것을 인지해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길 터주기를 해야 할 것이다.

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'소방차 길 터주기'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이다.



수사일보

http://www.susailbo.com

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, 7 101-403

회장	황일봉	대표전화	(062)-373-6448	FAX	(062)227-0084
사장	이문수	광고	(062)-373-6448	구독료	월 10,000원
발행·편집인	이기영	등록번호	광주 가69(일간)	인쇄처	(주)남도프린테크
부사장	기백관				
취재본부장	서용운				
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

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.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.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@naver.com 전화 062-373-6448

◆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그린피브로알로에

GREENFIBROOMEYE

그린피브로디엠아이

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

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!

소비자상담실 080-234-6588